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악한 때에 세월 아끼기 성경: 에베소서 5장 6-17절

Tag: 긍정적 적극적 태도가 엉뚱한 이념과 만났을 때, 세월을 아끼려면 진실과 대면하라.

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지는 자여(진실을 외면하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예수가 답이다)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거짓이 세월을 낭비하게 한다.
약간의 거짓이 세월을 앞당기게 하리라는 속임수에 속지 말라.)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엡5:6-17)

지난주에는 일종의 시시비비 가리기로 힘겨운 한 주간을 보냈다.

막말목사로 알려진 전광훈(광훈씨)이가 시위도중 한 말 때문. (10월

22일, 그날 바로 회개해야 할 것인데 뒤로 미뤄지면서, 사건화 되어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주간.)

다윗이 기름부음 받은 내용을 설교하다 한 말.

그는 설교에서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부음이 임했다고 함. (그러나 다윗의 기름부음은 개인적으로는 사명감당을 위한 자기 확신용이지, 대중 선동용이 아님. 대중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함. 광훈씨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태움(일종의 기독교적 패스트 트랙). 그러면서 자신이 성령충만한 자라고 강조함으로 대중들에게 자신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전함.)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함.

자신은 하나님의 보좌를 꼭 붙들고 살고 있다고 함.(삼각산 기도)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꼼짝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는 망발을 함.

이런 천인공노할 발언에 한번 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옹호하는 목사들에게 한번 더 놀람. (많은 사람들과 좌파와 타 교단 사람들은 맹비난함. 죄 뭇은 ‘신성모독’)

그들이 광훈씨를 옹호하는 이유

- 시국이 위급한데, 사소한 일로 문제 삼지 말고 멍치자.
-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표현이다. 이해해라.
-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니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 악의적 편집을 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라, 버릇없는 손주가 할애비 수염잡는 식이니 버릇이 없긴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신성모독이 아니다. 그가 그럴 리 없다.

그러나 나는 오래도록 이 사람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면서 말에 실수가 많고 자만심이 지나치고 겸손할 줄 모르는 자이기에 불안한 마음을 숨기고 지냄.

-시국이 위중한 만큼 강인하고 리더십이 있는 자가 그래도 험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멀리서 응원하였음. 삼손 생각하면서.

-수 없이 많은 교만하고, 자기선전용 말을 하였지만, 대중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선지자이라는 확신용으로 자가 세뇌 당하는 자료로 사용함.

-곁에 있는 정치인들, 재야 인사들까지도 그를 부추이고 거들면서 대중집회에 자신의 얼굴을 내밀기 원함.(이들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광훈이가 망해가고 있음. 잘못을 드러내지 않음.)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음.

-그는 설교 도중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비중이 큰 인사가 되기를 노골적으로 바랐고, 말로는 아니라고 하나 그의 언행이 그것을 지향함.

-그는 스스로 12월 21일을 D-day로 삼고, 집회의 종식과 더불어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날로 삼음. 자승자박임.

-자승자박의 압박이 결국 하나님께 향한 압박성 기도가 되었고, 한국교회를 향한 자폭테러가 되었고, 그 스트레스가 자신의 영혼을 짓눌러 하나님 꼼짝말고 나를 도우라는 식으로 망발을 한 것으로 보임. 자신이 죽는날로 생각하고 있는 듯함.

-그러나 이런 일은 성경에도 등장함. 엘리야나 세례요한이 그랬듯이 (요즈음의 두루킹) 자기 자신의 로드맵이 어긋나면 자멸하게 될 것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그리는 역사의 파노라마는 그 유명한 모세도 무너뜨렸고, 80년 세월을 허송케 했다.)

-행5장에 보면 ‘드다’가 있었고,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도 그랬다.

-행21장에 보면 ‘애굽인 거짓 선지자’가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반역을 도모했다는 말이 나옴.(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에 보면 그가 3만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려다가 로마군에 의해서 무산됨)

-내가 볼 때 광훈은 스스로를 밝히 보지 않고, 자신의 이념에 사로잡혀 바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우리공화당의 조원진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나 우리공화당이나 황교안대표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현명하다. 왜 스스로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밑으로 모으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그의 망발은 이런 헤게모니 중독으로 얻은 헛된 꿈을 하나님의 기름부음으로 억지 해석하면서 벌어진 헤프닝이다. 그의 망발이 결코 실수나 헤프닝이 아닌 이유는, 망발 직전에 한 말 '이제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라는 말로 해석해야 정확해진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붙들리시는 분이 아니시다.(야곱 빙의) 오히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신다. 오히려 한국교회의 경건한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있다.

6 누구든지(자칭 성령의 기름부음을 강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 (특히 지나가듯이 하는 혼잣말-자기의 의중이 들어있음)

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1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표준새번역)

-진실을 밝히십시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면 거짓은 사라지고, 정체가 드러나고 무엇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

-백남기씨의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인 병사지만, 이미 내원했을 당시 두개골 4군데 골절로 밝혀짐.(두개골 골절은 망치로 심하게 쳐야 함) 결코 물대포 아님. 이미 병원에 왔을 때 그랬음. 빨간우의의 폭행이 의심됨.

12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당시 이 글을 쓴 바울이 마음에 둔 범죄행위는 개인적인 부정행위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내로남불 형인데, 그 이유는 자신만은 이런 부정이 정당하고(그런데 그럴듯한 거짓말), 그땐 다들 그랬지, 너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라는 거짓말에 속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이나 종교적 체험을 들먹임.-현재 광훈이는 위중한 시국상황을 자신의 교만의 밥으로 이용하고 있음.)

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3 빛으로 말미암아 폭로되는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표준새 번역)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로소 문제는 해소되기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광훈씨 없어도 됨. 하나님이 계신다.

-오히려 황교안씨가 더 하나님의 사람답다. 그는 겸손하며 사실들을 가지고 전쟁하고 있다.

1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는 크게 회개해야 한다. 만약 그가 회개한다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잘 돌아가게 될 것이며, 자신이 예수님을 가로막는 베드로처럼

럼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일 것이며, 평안할 것이다.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 앞에 정직하고 담대하게 대면하는 것이다. 내 고집 피우고 해야 할 회개 하지 않으면 마귀는 끝까지 나를 속일 것이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나는 결코 그것이 거짓인 줄 모를 것이고 나는 세례요한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나를 망케 하는 자는 나다. 그 누구도 아니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제자의 자기계발

성경: 에베소서 5장 18-21절

Tag: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엡5:18-21)

개발과 계발

nature and nurture

1. 술 취하지 말고, 성령충만

-술 취함의 핵심; 술(호르몬 교란 요인으로)로 자신의 본성을 활성화하여(스위치를 켜서, 시냅스 점화) 만족에 이룸.

-호르몬 교란 요인;책, 여행, 음식, 특정 분위기, 장소, 시간, 사람, 냄새, 물건, 추억, 음향, 목소리, 상황, etc.

-nature;이미 주어진 DNA는 nurture에 의해서 활성화의 진행 방향이 바뀌게 됨.

nature로서의 DNA;

-nurture가 훌륭해도 DNA의 중요성을 넘어서지 못한다.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 결코 인간이 되지 못한다.

-결국 인류는 최고수준의 DNA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DNA를 발현시키는 것은 양질의 nurture이다.

-놀랍고 신비스럽게 설계된 하나님의 창조물. 모든 생명 현상과 삶에 핵심적 기초.

-본성적인 발생 프로세스가 있음.

-반드시 요구되는 기초적 환경이 있음.

nurture: 스위치를 어떤 방향으로 켜느냐의 문제.

-물리적 환경이 준비되지 않으면 발생이 멈추든지, 죽든지, 건너뛰든지, 불구가 되든지 함.

-정서적 환경이 준비되지 않으면 정서적DNA가 형성되지 않고, 후세대에 전달되지 않음.

-지적 환경이 준비되지 않으면 외적인 행동에까지 영향이 미침.

-문화적 환경이 준비되지 않으면 개발이 일어나지 않음.

-영적인 환경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닫히든지 열리든지 함.

-마귀가 영적인 환경을 자신의 영역으로 이용함.

누가 스위치를 켜느냐?

-부모, 또는 양육자.

-문명과 문화

-스스로, 자아가(역시 기초가 되는 부모, 문명, 문화가 전제 됨)

-성령께서 reset 함; 영적인 문을 열 (그렇다고 즉시 과거의 모든 nurture가 소멸되지는 않음. 그러나 상당부분 바뀌고 치유됨.)

2. 시, 노래, 찬송,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함, 마음으로 주께 노래함,

-정서적, 지적, 영적으로 신령해야 함. -그래야 비로소 켜지는 스위치가 있음.

-신령함의 기초는 진실(사실관계)과 진리(인격적)

-서로 화답함; 코드를 맞추어야 조율이 되고 제대로 께 맞추어짐. 사람마다 영성하고, 비뚤고, 틀어진 방향성이 있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함; 자기 스스로가 가지는 독창성이 있음, 누구

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것. 이것으로 주와 대면함. 진정한 자기 자신.

-새로운 문화, 문명의 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됨.

20절 ; 주도권이 주께 있음.

21절 ; 삶의 목적이 너에게 있음.